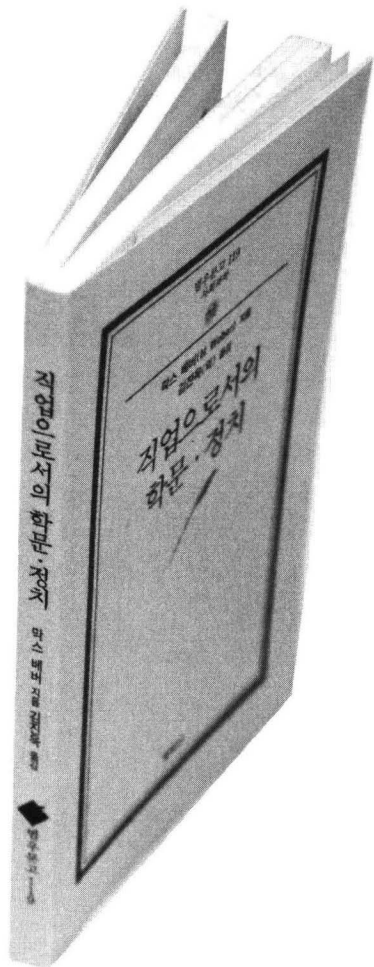


# 모든 '완성'은 새로운 '질문'이다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막스 베버 지음 | 김진욱 옮김 | 범우사 | 190쪽 | 2,800원

●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현터'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 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정치경제 수업시간이었다. 선생님은 갑자기 드넓은 칠판에 표 두 개를 그리셨다. 이상하게도 표 안에는 아무런 콘텐츠가 담겨 있지 않았다. 한쪽 표는 사방이 단정한 테두리로 가로막혀 있었고, 다른 한쪽 표는 테두리가 없이 사방이 뚫려 있었다. 텅 빈 표 두 개만 덩그러니 그려놓으시더니,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그 내용을 재연해보면 이렇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힌 표는 자연과학의 표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연과학의 성격을 보여주죠. 실험의 결과나 데이터의 내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사방이 뚫린 이쪽 표는 인문학의 표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개방성, 결론을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인문학에서는 중요해요. 영원히 완결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인문학의 성격이지요." 그 순간 문과와 이과의 선택지를 놓고 방황하다가 수학적 성적에 좌절 후 문과를 택했던 내 영혼은 안식을 찾았다. 쉽사리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망설임의 세계, 언제나 내 의견의 깃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결론의 완결성보다는 미완의 여백을 남겨두는 여유……. 이런 것들이 과학적 합리성보다 나를 사로잡은 가치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에피소드의 약효는 꽤 오래 지속되었다. 5년 후 '취업이나 진학이냐'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또 다시 방황할 때, 다시 한 번 참고 문헌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5년 후의 나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인문과학적 소양'이 단순히 인문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배움을 꿈꾸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계관이기도 했다. 나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바둑판 위에서 좀 더 오래 뛰놀고 싶었다. 물론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학부생활 동안에는 풀지 못했기에 그 유예기간을 슬쩍 늘리고 싶은 마음이 절반이었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내 머릿속에 그려진 학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둑판 이미지는 낭만적 허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 했다.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라는 원초적 고민조차 잊은 채 나는 그저 '다음 학기에도 등록을 하고 책값과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라는 '저차원적' 번민에 온통 정신을 빼앗겼다. "그놈의 책을 보면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로 시작되는 어머니의 회한 서린 낫두리는 처음에는 눈먼 오기를 불사르게 했고, 나중에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르는 복수심이 되었고, 마침내 그저 내 등 뒤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병풍이 되었다.

다시 5년이 흐르자, 대학원이 요구하는 정식 커리큘럼이 끝났다. 이제 허허벌판에서 아무런 원군도 없이 '학문'이라는 깃발을 내건 일만대군과 홀로 대치하는 심정이 되었다. 학문대군의 수장은 나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이제 유예기간은 끝났다. 네가 배운 학문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맨몸으로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화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막스 베버의 책 《직업으로서의 학문》은 내 번민을 심장 부를 정확히 꿰뚫는 제목을 지니고 있다. "학문의 의의에 대한 여러 견해들, 즉 '진정한 실재로의 길', '진정한 예술로의 길', '진정한 자연으로의 길', '진정한 신성으로의 길', '진정한 행복으로의 길' 등이 모두 이전의 환영으로서 소멸되어버린 오늘날, 학문의 직분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막스 베버의 이 질문은 100년 전 독일 대학생들의 질문이기도 했고, 학력 인플레이에 처한 21세기 한국의 질문이기도 하다. '학력學歷'을 증명하는 갖가지 증서는 난무하지만 '학력學力'의 의미는 아무도 묻지 않으려는 사회. 베버는 당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독일 대학의 미국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청년들은 무엇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나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통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존중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개인적인 업적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나이는 내 아버지의 돈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내게 그의 지식이나 방법을 팔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야채장수가 내 어머니에게 양배추를 파는 것처럼.'"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막스 베버의 논의가 마치 2005년 한국의 일인 양 생생하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학문을 폄하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게 학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초발심마저 잃어버린 내 안의 나와 대면하는 열이다.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병사들 몰래 비밀병법을 훑쳐보는 실력 없는 무장의 심정으로 펼쳐든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야 깨닫는다. 일만대군의 기세로 돌진하는 저 적군은 학문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 안의 의심과 타애했음을. 무진장 위대한 학문의 가치를 찾아 헤맨 것은 내 안의 나약한 의심이 있었음. 나는 학문 자체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향한 내 재능을 의심할 뿐이었고, 학문에 얽힌 생활의 중력을 감당 못해 허둥대고 있을 뿐이었던음. 결국 나는 학문의 가치 자체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향

한 길 입구에 흩어진 하찮은 사금파리들에 발바닥을 찢려 피 흘리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른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특히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가장 곤란한 것은 이 일상의 다반사를 견뎌내는 일입니다. '체힘'을 추구하는 노력도 이러한 의미의 허약함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약함이란 결국 시대의 숙명을 똑바로 응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부 때 가장 감동적인 수업 중 하나였던 정운영 선생님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강의에서 선생님은 수업도 예술의 경지로 승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오감을 깨워 감정의 모공을 한껏 열고 수업내용을 호호흡할 수 있도록 온갖 진기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는 그 어려운 자본론을 대상으로 할 때조차 조금도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수업 자체가 걸출한 연극배우의 총천연색 모노드라마처럼 긴장감과 흡인력으로 넘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강의를 끝날 무렵,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론적 지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거리로 나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요."

베버는 교사가 지도자나 예언자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되며 학문과 예술은 엄연히 길이 다름을 역설한다. 그러나 정운영 선생님의 강의와 글을 생각하면, 학문 자체는 지도자나 예술작품의 역할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학자의 삶과 글'은 학문과 예술의 문턱을 지워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의심을 품게 한다.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가르는 베버의 메시지는 여전히 몽클하다. 그러나 베버의 메시지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예술의 영토에 둘러진 울타리 안쪽을 엿보고 싶은 학자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선동한다. "진실로 '완성'된 예술품은 능가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낡아 버리지도 않습니다. (……) 아무도 예술적 의미에서 진실로 '완성'된 작품이 다른 하나의, 역시 '완성'된 작품에 의해 '추월당했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학문에서는 자기가 연구한 것이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돼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문연구의 운명이며 더 나아가 학문연구의 목표입니다. (……) 학문상의 모든 '완성'은 새로운 '질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가'되고 낡아버리기를 원합니다." **\*\*\***